

心理哲學의 現況

金 鎮 泰

目 次

- I. 序 言
- II. 意識存在論의 概說
- III. 意識存在論의 認識論的 및 科學哲學的 解說
- IV. 結 言

I. 序 言

論理的 實證主義의 旋風이 지나간 오늘 英美의 分析哲學은 조심스럽게 形而上學的 問題를 새로운 形態에 담아 復活시키는 傾向을 보인다. 實證主義가 在來式의 形而上學을 哲學에서 驅逐하려는데 使用한 檢證原理(the verifiability principle of meaning)는, 形而上學陣에서 그에 대한 反論이 채 마련되기 전에 檢證原理의 積極目的인 科學知識의 認識論的 定立에 眞摯한 關心을 가진 科學哲學者들의 徹底한 批判아래 修正에 修正을 거듭 받은 나머지 反形而上學的 效能을 잃다시피했다. 또 檢證原理와 結付된 言語觀을 反對하는 日常言語哲學(ordinary language philosophy)이 나옴으로써 形而上學的 言語의 特殊한 使用方式을 밝히는 것이 妥當한 哲學的 課題로 認定됨에 따라 在來式의 形而上學에 대한 一般態度가 자못 누그러진 것은 事實이나, 日常言語哲學이 形而上學的 問題를 問題視할만큼의 寬大性을 보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形而上學的 問題가 다시 重要視되는 곳이 오히려 論理哲學, 數理哲學, 經驗科學哲學 및 言語哲學이라는 事實이 注目된다. 心理的 概念과 心理現象의 說明과 心理學的 理論의 分析을 일삼는 心理哲學(philosophy of mind)이 形而上學的 性格을 가장 顯著하게 보이는 分析哲學分野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心理哲學의 現況을 밝히고 心理哲學에서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物質主義的 意識論을 둘러싼 論議領域을 整理하는 것이 本論文의 趣旨

인데, 心理哲學의 形而上學的 性格을 밝히는 것도 本論文의 附隨的인 目的이다.

II. 意識存在論의 概說

二十世紀初에 分析哲學이 擡頭하기까지 데카르트(René Descartes)以後의 西洋哲學은 대체로 意識에 관한 問題의 考察을 哲學의 思索의 基點으로 삼았다. 知識體系의 論理的 및 認識論的 分析이 哲學의 主要한 任務이며, 確實한 知識이 知識體系의 基盤이며, 意識의 存在와 構造와 內容이 反省의 直觀을 통한 確實한 知識의 對象이라는 見解가 近代 西洋哲學의 意識問題中心的 傾向의 要因이었다. 그러나 近代 西洋哲學의 認識論的 執念이 意識에 관한 存在論的 問題를 抑制할 수는 없었다. 反省의 直觀에 나타나는 意識의 構造와 內容이 確實한 知識의 對象이 된다고 假定해도 意識의 構造와 內容은 意識의 存在論的 性格을 밝히지 못하는 까닭에 意識存在論은 確實性이 없는 理論的 次元으로의 冒險이었다. 데카르트의 *sum res cogitans*가 *cogito*의 論理的 結果로만으로도 成立될 수 없고, *sum res cogitans*가 *cogito*의 確實性을 못 가진다는 점을 여기서 세삼스럽게 論證할 필요는 없었다. 요즈음 分析의 心理哲學에서 意識에 관한 存在論的 問題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問題가 分析哲學이 本格化되기까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밝혀야하므로, 本章에서 在來式의 意識存在論을 概說하겠다.

意識에 관한 存在論的 問題는 주로 意識主體에 관한 問題다. 意識主體에 관한 問題는 意識은 主體에 歸屬되는가, 意識主體는 實體인가, 그렇다면 意識主體는 어떠한 種類의 實體인가라고 設定할 수 있다. 意識이 主體에 歸屬된다고 主張하는 理論들은, 意識은 實體의 屬性이며, 意識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는 아무 다른 屬性을 갖지 못한다는 意識實體論(the mental substance theory)과, 意識은 實體의 屬性이며 意識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는 延長도 屬性으로 가져야 한다는 物心同一實體論(the mind-body identity theory)과 意識은 實體의 屬性이지만 意識은 物質狀態나 物質過程으로 還元된다는 物質主義的 意識論(the physicalist theory of mind 혹은 단순히 physicalism)과 意識主體는 意識의 統一的 構造의 必要條件이지만 意識主體는 實體로 概念化될 수 없다는 先驗的 主體論(the transcendental subject theory)을 包含한

다. 個別的 意識現象이 絶對的 存在로서 아무런 主體에도 歸屬될 수 없다는 無主體論(the no-subject theory)이 上述한 理論들과 對立된다.

意識主體에 관한 存在論的 理論은 物體에 관한 存在論的 理論과 結付됨으로써 복잡해진다. 意識實體論者는 意識하는 實體以外에도 延長된 實體가 存在한다는 物心二元論(mind-body dualism)을 採擇할 수도 있고, 延長된 存在은 意識에 內在하는 觀念이라는 唯心論을 採擇할 수도 있다. 物心二元論者는 意識狀態가운데 어떤 것은 어떤 人體狀態의 原因이며, 意識狀態가운데 또 어떤 것은 어떤 人體狀態의 因果的 結果라는 物心相互作用論(dualistic interactionism)을 採擇할 수도 있고, 意識狀態와 人體狀態사이의 因果關係를 否定하고 그들사이에는 어떤 非因果的 關係가 있다고 主張할 수도 있다. 말르브랑슈(Nicolas de Malebranche)의 契機論(occasionalism)이 둘째 種類의 理論이다.

物心同一實體論은 延長된 存在를 實在視하지 않을 수 없다. 物心同一實體論者는 意識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는 延長을 屬性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고 主張하지만, 그는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처럼 延長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는 意識을 屬性으로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主張할 수 있다. 筆者는 여기서 物心同一實體論이라는 名稱으로 첫째의 主張을 내세우는 理論을 指示한다. 物心同一體論者도 物心二元論者처럼 意識狀態와 人體狀態사이의 關係를 規明하는 問題에 當面하는데, 前者도 後者처럼 意識狀態가운데 어떤 것은 人體狀態의 原因이며, 意識狀態가운데 또 어떤 것은 어떤 人體狀態의 因果的 結果라는 理論을 採擇할 수 있지만, 이 理論에서 쓰이는 因果關係의 概念은 物心相互作用論에서 쓰이는 因果關係의 概念과는 다르다. 物心相互作用論에서는 因果關係가 두 實體사이의 關係로 理解되는 반면에 物心同一實體論에서는 因果關係가 같은 實體의 狀態들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理解된다. 實體들사이에만 因果關係가 可能하다는 因果觀이 採擇되면 같은 實體의 意識狀態와 物質狀態사이에는 因果關係가 許容될 수 없을 것은 勿論이다. 物心同一實體論者는 또 各 種類의 意識狀態는 某種의 共存하는 物質狀態와 一對一로 符合된다는 物心並行論(panallelism)을 採擇할 수도 있다. 原因과 結果는 時間的으로 連接해야 한다는 因果觀의 觀點에서는 一對一符合이 因果關

係일 수 없다. 意識과 延長을 같은 實體의 屬性으로 解釋하는 物心同一實體論의 趣旨가 意識狀態와 物質狀態사이의 例外 없는 體系的 關係를 樹立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意識狀態와 物質狀態사이에 部分的인 因果關係가 있다는 理論보다는 物心並行論이 物心同一實體論과 더 잘 調和된다.

物心同一實體論과 物質主義的 意識論을 混同해서는 안된다. 物心同一實體論은 延長을 屬性으로 갖지 않은 意識實體의 可能性을 否定하지만, 그 理論은 적어도 意識을 延長에서 獨立된 屬性으로 認定한다. 따라서 物心同一實體論은 延長만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와 延長과 意識을 並有하는 實體를 서로 다른 實體範疇로 認定한다. 意識은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또는 存在論的으로 獨立될 수 있다. 意識이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었다는 말은 意識狀態概念이 物質狀態概念으로 定義 또는 分析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意識이 延長에 存在論的으로 獨立되었다는 말은 意識狀態概念의 適用範圍(extension)와 物質狀態概念의 適用範圍가 다르다는 것을 意味한다. 반대로 意識이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지 않았다는 말은 意識狀態概念이 物質狀態概念으로 定義 또는 分析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意識이 延長에서 存在論的으로 獨立되지 않았다는 말은 意識狀態概念의 適用範圍가 어떤 物質狀態概念의 適用範圍와 같다는 것을 意味한다. 意識이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지 않았으면 意識이 延長에서 存在論的으로도 獨立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異議가 없으나, 意識이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었어도 意識이 延長에서 存在論的으로 獨立되지 않을 수 있다고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物質主義的 意識論의 硬型과 軟型을 區別할 수 있다. 物質主義的 意識論의 硬型은 意識이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存在論的으로도 獨立되지 않았다는 理論이다. 이 理論을 論理的 還元論(logical reductionism)이라고 부르겠다. 物質主義的 意識論의 軟型은 意識은 延長에서 論理的으로 獨立되었으나 存在論的으로는 獨立되지 않았다고 理論이다. 이 理論을 存在論的 還元論(ontological reductionism)이라고 부르겠다. 存在論的 還元論은 物質主義的 存在論的 論證範圍를 넘어서는 高踏的인 理論이므로 各別한 考察을 要求한다.

先驗的主體論은 칸트(Immanuel Kant)의 복잡한 批判哲學의 文脈에서 構

成된 理論이므로, 批判哲學의 全體의인 解釋을 떠나 充分히 理解되고 鑑定되기 어렵지만 先驗的主體論의 骨子は 다음과 같다. 感覺의 經驗의 客觀的對象은 感覺의 直觀에 주어진 質料가 先驗的 法則에 따라 綜合됨으로써만 可能한 것인데, 感覺質料의 法則的 綜合의 必要條件의 하나가 綜合機能이 歸屬되는 主體의 同一性이다. 그러나 實體概念같은 範疇는 感覺質料의 綜合을 規制하는 法則의 表象으로서만 經驗的 意味를 가질수 있는 까닭에, 實體概念은 反省의으로 直觀될 수 없는 純粹한 論理的 主體에 意味롭게 適用될 수 없다. 先驗的主體論과 體系的으로 關聯된 先驗的 觀念論(transzendentaler Idealismus)이 物體를 觀念化 또는 칸트의 意味에서 現象化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物體란 感覺質料가 感覺의 直觀의 先天的 形式인 時間과 空間의 秩序에서 悟性이 先天的으로 提供하는 範疇體系에 包攝됨으로써 나타나는 現象이다. 칸트는 意識主體의 存在論的 斷定에 필요한 概念體系조차 許容치 않음으로써 意識主體論을 妥當한 理論의 分野로 認定치 않았다. 그 결과로, 칸트哲學에서는 經驗的 自我의 概念조차 밝혀지지 못했다. 經驗的 自我는 先驗的 主體가 時間과 空間에 存在하는 現象으로 客體化하는 自我지만 心理狀態 및 心理機能이 經驗的 自我에게 歸屬되는 한 經驗的 自我는 主體로 表象化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것은 物體와 根本的인 差異를 보인다. 經驗的 自我는 主體의 自己斷定이다. 그러나 先驗的 主體는 時間과 空間에 存在하는 것으로 概念化될 수 없는 까닭에 經驗的 自我는 先驗的 主體와 完全히 同一視될 수도 없다. 完全히 現象視될 수도 없고 先驗的 主體와 完全히 同一視될 수도 없는 經驗的 自我의 中間의 存在型은 칸트哲學의 未解決 問題의 하나다. 이와 關聯해서 칸트哲學은 經驗科學으로서의 心理學의 可能性과 形態를 밝히지 못했다. 칸트哲學에서는 因果法則이 客觀性的 領域에서만 適用되며, 客觀性的 所在가 物的 現象界이므로, 因果法則은 物的 現象界에서만 適用될 수 있다. 心理現象과 心理現象사이거나 心理現象과 物質現象사이에는 因果關係가 成立되지 않는다. 칸트哲學이 經驗記述의 혹은 現象學的 心理學의 可能性까지는 否定하지 않지만, 科學을 法則樹立的 및 說明的 學問으로 본 칸트는 經驗記述의 心理學을 本格的인 科學으로 認定치 못하는 立場에 처했다.

無主體論의 두 形態를 區別할 수 있다. 하나는 副產現象主義(epiphenomenalism)요 또 하나는 現象主義(phenomenalism)다. 副產現象主義는 物體만이 實體라고 主張하는 한편 意識現象은 物質過程의 副產現象이라고 主張한다. 意識現象이 物質過程의 副產現象이라는 말은, 意識現象은 物質過程의 物質的 結果에 附隨하는 結果로서만 產出되며, 意識現象은 能動的 因果機能이 없어 아무 物質現象도 아무 다른 意識現象도 產出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譬喻的으로 말하면, 意識現象은 因果過程의 막다른 골목이다. 다시 말하면 意識現象은 物質過程으로써만 說明될 수 있고, 意識現象은 아무것도 說明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副產現象主義가 왜 無主體論의 類型인가는 說明을 要求한다. 意識現象이 物體의 內部的 過程의 因果의 產物이라면, 그 現象이 그 物體에 歸屬됨직하기 때문이다. 副產現象主義는 結局 屬性을 가진 實體와 實體에 歸屬될 수 없는 現象을 서로 다른 存在範疇로 삼고 意識現象을 後者の 存在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解釋한다. 副產現象主義와 現象主義는 判異한 存在論的 理論이다. 前者가 物體를 實體視하는 반면에 後者는 個別的 意識現象을 窮極的인 存在單位로 본다. 現象主義에 따르면, 物體와 마음(mind)은 모두 意識現象들의 論理的 組織(logical construct)이다. 物體와 마음은 같은 種類의 構成要素를 가지며 오직 構造上으로만 다르다. 現象主義는 한때 論理的 實證主義와 結託하여 得勢했지만 現象主義는 理論科學의 適切한 解釋을 주지 못한다는 反論과 現象主義가 含蓄하는 言語觀이 不當하다는 反論의 壓力 아래 요즘 英美哲學에서 淘汰되었다. 論理的 實證主義가 現象主義를 內包하지는 않는다.

III. 意識存在論의 認識論的 및 科學哲學的 解說

意識存在論 一般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은 意識存在論이 어떠한 支援를 받을 수 있으며, 相反되는 意識存在論들을 比較的으로 鑑定할 수 있게 하는 基準이 무엇인가다. 意識存在論은 아무 經驗的 根據없이 思辨的으로만 이룩된 理論도 아니며 經驗的 考慮만으로 立證될 수 있는 性格의 假說도 아니다. 意識存在論이 주어진 意識現象과 可及的으로 符合되면서 가장 包括的이며 條理있는 事實의 知識體系의 一部가 될 수 있는 理論으로서 構成된 것이라고 말하면, 意識存在論이 理論科學과 彷彿하다는 誤解를 일으킬 염

려가 있다. 理論科學도 주어진 現象을 說明함에 있어 그 現象만이 立證할 수 없는 理論的 假說을 樹立하는 까닭이다. 意識存在論이 理論心理學(theoretical psychology)의 前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意識存在論의 性格을 밝히는 것이 本章의 主要한 목적이다.

上述한 意識存在論을 主唱하는 大多數의 哲學者는 意識存在論이 哲學이 提供할 수 있는 事實的 知識의 一部라고 主張할 것이다. 哲學이 事實的 知識 特히 超驗的인 事實的 知識을 提供할 수 있다는 見解는 칸트때부터 漸加的인 批判을 받아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칸트哲學의 意義가 그것이 哲學의 關心을 知識의 對象으로부터 知識의 可能條件과 構造와 限界로 도터겼음에 있다고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批判哲學의 內容이 絶對的 妥當性을 지닌 先驗的 綜合判斷으로 構成된다는 칸트의 主張을 그대로 納得하는 사람은 지금 드물겠지만, 哲學의 知識批判的 性格을 否定하는 사람도 지금 드물 것이다. 先驗的 綜合判斷의 概念도 分析哲學에서 解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哲學의 命題가 모두 分析命題라고 主張하는 사람도 分析命題가 밝히는 概念의 適用이 妥當하거나 不當하다는 第二命題(meta-proposition)의 論理的 性格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分析哲學者는 그 第二主張이 經驗的 主張이라고 봄으로써 哲學을 經驗科學視하거나, 그 第二主張이 論理的 必然성이 아닌 某種의 必然性을 지닌 先驗的 主張이라고 보아야 하는 兩者擇一의 立場에 있다. 솔직히 말해서 論理的 實證主義가 優勢했던 分析哲學의 初期에는 大多數의 分析哲學者가 分析哲學의 窮極의 性格에 대해 悞嘆할 정도의 無關心을 보였지만, 요즘 分析哲學은 反省의 段階에 깊이 들어가 있다. 최근에 나온 <뵈겐슈타인論>(Ludwig Wittgenstein, New York: Vikings Press, 1972)에서 著者 페이스(David Pears)는 뵈겐슈타인의 初期 著書인 <論理 및 哲學 論究>(Tractatus Logico-Philosophicus)는 칸트式 先驗哲學의 現代型을 提示하며, 뵈겐슈타인의 後期 思想을 모은 <哲學研究>(Philosophische Untersuchungen)는 그가 初期에 가졌던 先驗的 哲學觀과 正反對되는 經驗的 哲學觀을 내세웠다고 解釋한다. 페이스의 解釋엔 그가 내놓은 範疇體系가 經驗的 知識을 可能케 하는 同時에 그것을 限定한다고 主張한 칸트처럼, 初期의 뵈겐슈타인은 러셀(Bertrand Russell)과 화이트헤드(Alfred A. Whitehead)의 <數學原理論>

(*Principia Mathematica*)에 담긴 外延的 論理(extensional logic)에 따라 組織된 原子命題體系(system of atomic propositions)가 可能한 經驗的 知識의 構造를 이룬다는 先驗的 主張을 마음에 담았었고, 後期的 빈젠슈타인은 理想言語(ideal language)의 構成을 拋棄하고 自然言語(natural language)의 使用方式을 經驗科學的으로 探究하는 것이 哲學의 本務라고 생각했다. 빈젠슈타인의 哲學的 思索의 主要한 關心事가 哲學의 性格이었다는 것이 케어스의 解釋이 強調하는 점이다. 한 哲學者의 哲學觀이 極에서 極으로 轉換했다는 事實 自體가 哲學史的 興味를 끌겠지만, 지금 分析哲學運動에 앞장선 케어스가 빈젠슈타인 解釋을 통해서 分析哲學의 根本問題, 즉 分析哲學의 性格을 規定하는 問題를 浮刻시켰다는 事實이 더 뜻깊다고 筆者는 본다. 分析哲學의 嬰兒期에는 分析哲學이 個別的 概念의 分析에 그친다는 見解의 流行으로 因하여 分析哲學이 淺薄하다는 非難을 받았지만, 成熟한 分析哲學은 지금 個別的인 概念보다 概念體系를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分析된 概念體系의 妥當한 適用의 條件을 밝히는 것을 목적삼는다. 가장 基本的인 概念體系의 批判이 바로 칸트哲學의 意圖였다. 妥當한 適用이 可能한 概念體系의 複數性이 인정되는 오늘, 칸트의 範疇體系같은 特定한 概念體系가 絶對的인 定驗的 機能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妥當한 適用이 可能한 複數의 概念體系를 比較的으로 鑑定할 수 있게하는 基準의 闡明이 문제되고 있다. 빈젠슈타인의 後期 思想에 담겼다고 해석되는 經驗的 哲學觀을 發展시키는 哲學的 運動이 츄스키(Noam Chomsky)가 代表하는 構造言語學(structural linguistics)에서 일고 있다는 事實이 하나의 아이러니다. 構造言語學者는 言語의 科學的 分析은 理論化된 言語學을 통해서만 可能하다고 主張하면서 日常言語의 直觀的인 分析을 일삼는 後期 빈젠슈타인의 追從者를 몹시 非難하는 까닭이다.

形而上學的 理論이면 모두가 無意味한 言語遊戲라고 보는 淺薄한 實證主義的 觀點을 넘어 上述한 意識存在論을 살피면, 意識存在論은 心理學的 理論的 構造를 豫定하는 心理哲學의 前身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在來式의 意識存在論과 現代科學哲學의 連續性을 보이는 것이 이 解釋의 큰 長點이다.

意識存在論이 認識論的 考察으로써만 成立된 것은 아니나 認識論的 基礎을

갖지 않을 수 없다. 認識論으로부터 意識存在論으로의 轉移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後者が 包含하는 認識論的 要素를 빼어 밝혀야 하겠다. 物心二元論이 認識論的 支援을 各別히 標榜하는 理論이므로 그 理論의 認識論的 基盤을 살펴봄직하다.

二元論的 認識論은 心理的 概念은 그 構成過程과 性格과 構造와 適用樣式에 있어 物理的 概念과 다르다는 主張을 包含한다. 心理的 概念은 意識主體가 자기의 意識狀態를 反省的으로 直觀함으로써 構成하는 明瞭하고 分명한 概念인 반면에, 物理的 概念은 感覺資料에 담긴 共通要素가 抽象되고 綜合됨으로써 構成되는 概念이며, 그 概念은 延長의 幾何學的 및 力學的 樣態以外的의 이른바 第二性質(secondary qualities)을 包含하는 限 明瞭치도 않고 分明치도 않다고 데카르트는 주장했다. 物體의 概念이 延長의 樣態만을 包含하는 것으로 淨化되려면 第二次的 抽象이 必要하다.

物心二元論의 論議을 特別한 課題로 負擔한 데카르트도 心理的 概念과 物理的 概念과의 構造上 差異를 밝히지 못하고, 부렌타노(Franz Brentano)에 의하면 心理的 概念이 對象志向的(intentional) 現象의 概念인 것이 指摘되었다. 心像(idée) 가운데 어떤 것은 對象의 實在性(realité objective)을 지닌다는 데카르트의 見解가 그가 對象志向的 構造를 心理狀態 一般의 特徵으로 據得했음을 暗示하지만 데카르트의 直觀的 理解는 完全히 밝혀지지 않았다.

心理的 概念과 物理的 概念과의 適用上 差異의 說明에는 確實性의 문제가 뚜렷이 介入한다. 概念의 適用이 判斷이므로 心理的 概念과 物理的 概念의 適用上 差異는 心理的 判斷과 物理的 判斷의 立證上 差異로 解釋될 수 있다. 二元論的 認識論에 의하면 意識主體 自身の 現在 意識狀態를 記述하는 判斷은 그 意識狀態의 反省의 直觀으로 立證되는 自證的(self-justifying) 判斷이며 確實性을 지닌 判斷이다. 確實性의 概念이 明白하지 않으므로 풀이가 必要하다. 데카르트는 確實性을 不可懷疑性으로 規定하고 cogito가 確實性을 가진 判斷이라고 主張했지만, 現在 意識의 特殊形態를 記述하는 判斷, 例컨대 dubito도 確實性을 가졌다고는 主張하지 않았다. 筆者는 不可懷疑性(indubitability)과 不可錯誤性(in corrigibility)을 確實性(certainty)의 두 形態로 보고 dubito가 確實性을 가졌다면 그 確實性은 不可懷疑性이 아니라 不可錯誤性

이라고 생각한다. 主體 *S*가 내리는 判斷 *P*가 不可懷疑性을 가졌다는 것은, *S*가 *P*의 眞實性을 疑心하면 *S*의 疑心이 도리혀 *P*의 眞實性을 立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定義에 따르면, *cogito*는 不可懷疑性을 가졌으나 *dubito*는 그 性格을 못가졌다. *S*가 *dubito*를 疑心한대도 그 疑心이 *dubito*의 眞實性을 立證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S*가 내리는 判斷 *P*가 不可錯誤性을 가졌다는 것은, *S*가 *P*가 眞實하다고 믿으련 그 믿음이 *P*의 眞實性의 充分條件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定義에 따르면 *cogito*와 *dubito* 모두가 不可錯誤性을 가졌다. 주어진 判斷이 不可懷疑性을 가지면 그것이 동시에 不可錯誤性을 갖게 되지만, 주어진 判斷이 不可錯誤性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不可懷疑性을 갖지는 않는다. 二元論的 認識論에 따르면, 物理的 判斷 즉 物體의 存在를 뜻하거나 存在하는 物體를 記述하는 判斷은 不可懷疑性도 不可錯誤性도 갖지 못한다. 意識實體와 物體사이에는 偶然的 關係만이 可能하다는 物心二元論을 前提하면, 物體의 存不在에 關한 判斷이나 存在하는 物體를 記述하는 判斷이 確實치 않은 것이, 그런 判斷은 意識에 內在하는 心像이 意識에 外在하는 物體와 符合된다는 推理를 內包하고, 事實的 推理에는 一般的으로 確實性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認識論이 存在論에 先行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이곳에선 物理的 判斷 不確實性의 存在論的 說明을 삼가야 하겠다.

物心二元論에 包含되는 認識論은 다른 意識存在論에도 包含될 수 있다. 物心二元論, 物心同一實體論, 副產現象主義 및 現象主義가 같은 認識論의 基點에서 出發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意識의 認識論的 考察만이 特定한 意識存在論을 充分히 立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s cogitans*가 意識만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라고 보면, *cogito*의 確實性이 *sum res cogitans*를 內包하지 않는다. *cogito*가 確實한 判斷이려면 *cogito*의 主語가 存在論的 性格이 아직 斷定되지 않은 主體를 指摘해야 한다. 이제 物心二元論과 物心同一實體論 사이의 辨證的 關係를 살핌으로써 意識存在論의 立證에 介入하는 要素를 밝혀보겠다.

物心同一體論은 意識만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를 否定하지만, 延長만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와 延長과 意識을 屬性으로 並有하는 實體를 相異한 存在

範疇로 看做하는 점에서 二元論的 存在論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單純性原理(the principle of simplicity)에 立脚해 物心同一實體論이 物心二元論보다 좀더 單純한 存在論이기 때문에 優位를 차지한다고는 論議하기 어렵다.

物心二元論에 依하던 意識實體가 意識만을 屬性으로 가진 實體이기 때문에 意識實體가 物體와 아무런 事實의 關係 없이도 存在할 論理的 可能性이 있으므로, 靈魂의 死後存續을 信奉하는 사람이 物心二元論을 採擇할 것은 當然하다. 이런 宗教的 關心以外에도 物心二元論을 支援하는 倫理的 關心이 있다. 意志의 自由가 道德的 責任의 必要條件이며, 意志의 自由가 意志의 自然法則的 秩序로부터의 離脫이라고 보는 사람은, 意識狀態와 物質狀態사이의 部分的인 因果的 相互作用을 假說하는 物心相互作用論을 採擇함으로써 物理的 原因 없이 意志가 作用할 論理的 可能性이라도 保障하려 할 것이다. 物心並行論은 意識狀態와 物質狀態사이의 因果關係를 否定하지만, 物質界가 決定的 構造를 가졌다고 假說되면 物質界의 秩序를 反映하는 意識現象도 決定的 構造를 가지게 되는 까닭에, 物心並行論은 自由意志論과 相反된다.

宗教的 및 倫理的 觀點에서 본 物心相互作用論의 長點은 決定論的 自然科學을 要求하는 사람의 觀點에서는 短長으로 보일 것은 勿論이다. 物心相互作用論은 意識狀態와 人體狀態사이의 部分的인 因果關係를 認定함에 따라, 物理的 原因 없이 心理的 原因만을 가진 物理的 事件이 發生할 論理的 可能性을 認定함으로써, 物質界의 決定的 構造를 錯亂시킨다. 物質界는 機械的 構造를 가졌다는 데카르트의 主張은 物心相互作用論과 相反된다. 데카르트는 結局 그의 哲學體系의 內部的 矛盾을 除去하지 못했다. 心理界와 物質界를 包括하는 因果體系를 假說함으로써 決定論을 救助할 수 있음직하나 그 假說은 物質界의 決定的 內部構造도 心理界의 決定的 內部構造도 保障하지 못한다. 한편 物心並行論은 物質界의 決定的 構造를 可能케 한다. 物心並行論에 依하면, 心理的 事件이 일어나면 그와 法則的으로 符合되는 物理的 事件이 있어야 하므로 後者が 前者를 說明한다고 말할 수 있다. 單只 心理的 事件의 並行論的 說明은 因果的 說明은 아니다. 또 心理的 事件은 그와 法則的으로 符合되는 物理的 事件의 物理的 原因에 依해서도 間接的으로 說明

된다고 말할 수 있다. 物理的 事件의 物理的 原因이 前者와 法則的으로 符合되는 心理的 事件을 豫測할 수 있게 할 것은 勿論이다. 한편 物心並行論은 心理狀態와 心理狀態사이의 關係를 밝히고 心理狀態의 心理的 說明의 可能性과 構造를 밝히는 問題에 當면한다. 物質狀態와 物質狀態사이의 因果關係가 있듯이 心理狀態와 心理狀態사이에도 因果關係가 있다는 理論에는 難點이 있다. 因果關係는 時間과 空間에서 일어나는 事件들 사이에서만 可能하다는 理論을 제쳐놓고도 因果關係는 時間的으로 連續的인 過程에서만 可能하다는 直觀的으로 妥當한 理論의 觀點에서는 連續性이 없는 心理過程에서 因果關係가 成立될 수 없다. 스피노자같은 物心並行論者는 必理狀態가 다른 心理狀態와 가지는 關係는 因果關係가 아니라 論理的 關係라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끝내 그 論理的 關係의 性格을 完全히 밝히지 못했지만, 그는 心理狀態의 心理的 說明이 한편으로 物理現象의 物理的 說明과 또 한편으로 心理狀態의 物理的 說明과 構造的으로 다르다는 重要한 理論을 提出했다. 物心相互作用論도 비슷한 問題에 當면한다. 意識狀態의 充分한 生成條件이 어떤 物質狀態인 경우에는 前者는 心理的 說明을 要求하지 않을 것이지만, 前者가 充分한 物理的 生成條件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心理的 說明이 要求될 것이다. 그러므로 意識狀態의 心理的 說明의 構造的 解明이 要請된다. 物心相互作用論者도 意識狀態의 心理的 說明을 因果的 說明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깨닫고 그런 說明을 某種의 非因果的 說明이라고 解釋할 수 있겠으나 意識狀態는 모두가 그와 並行하는 物質狀態로 說明되는 同時에 心理的으로도 說明될 수 있다고 主張하는 物心並行論에 比해서 物理的 說明을 받을 수 없는 意識狀態만이 心理的으로 說明된다고 主張하는 物心相互作用論에는 體系的인 一律性이 없다.

相反되는 意識存在論의 比較的 鑑定이 鑑定者의 理論的 및 實踐的 要求에 따라 그 基準을 달리할 것이나, 科學知識의 構造的 斷定이 哲學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오늘, 宗教的 및 倫理的 關心이 科學哲學의 關心에 先行할 수 없다는 見解가 널리 納得되어지고 있다. 科學哲學의 觀點에서는 物心並行論이 物心相互作用論보다 斷然히 有利하다.

物心相互作用論과의 比較에서 物心並行論이 가지는 또 하나의 理論的인

利點이 있다. 物心相互作用論者는 하나의 意識實體는 하나의 人體와만 因果關係를 맺는다고 假定하겠지만, 理論的 觀點에선, 하나의 意識實體가 한때 하나 以上의 人體와 因果關係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의 意識實體가 다른 時刻에 하나 以上의 人體와 因果關係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 以上의 意識實體가 한때 하나의 人體와 因果關係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 以上의 意識實體가 번갈아 같은 人體와 因果關係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런 理論的 可能性은 物心相互作用論에 다음과 같은 難點을 가져온다. 意識主體가 다른 意識主體의 存在를 알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자기가 어떤 種類의 意識狀態를 가졌을 때 그것과 因果的으로 關聯되는 物의 狀態와 類似한 狀態를 보이는 다른 人體를 觀察하고, 後者의 人體가 指摘된 種類의 意識狀態를 가진 意識實體와 因果的인 關係를 가졌으리라는 類推(analogical inference)인데, 그 類推가 當面하는 困難은 觀察되는 他人體가 指摘된 時刻에 몇개의 意識實體와 因果關係를 맺고 있는지를 斷定할 수 없는 것이다. 觀察되는 他人體가 하나 以上일 수 없다는 理論的 保障이 없는 限 “時刻 t에 이 人體와 因果關係를 맺는 意識實體”라는 指摘記述(definite description)을 妥當하게 適用하기 어렵다. 한편 物心同一實體論에 依하면, 意識하는 實體는 同時에 物體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人體의 個別性이 意識主體의 個別性을 充分히 斷定한다. 物心同一實體論者도 意識者가 자기 以外에도 다른 意識者가 있다는 것을 아는 唯一한 方法이 類推라는 立場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物心同一實體論의 觀點에서는 他意識者 存在의 類推가 比較的 簡單하다. 그 理論的 觀點에서는 意識者가 자기가 어떤 種類의 意識狀態를 가질 때 그것과 並行하는 物質狀態와 類似한 物質狀態를 가진 다른 人體가 하나 以上의 意識者일 可能性이 있지 않을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他意識者 存在의 類推 一般이 아직 考察되지 않은 다른 문제에 當면하지만 그 類推의 必要性과 可能性이 認定되는 마당에서는 그것이 物心二元論에서보다는 物心同一實體論에서 問題性을 덜 가진다.

여기서 物心二元論이나 物心同一實體論 같은 形而上學的 理論은 아무 經驗的 結果를 낳지 못하는 無謀한 理論이란 見解를 是正하고 싶다. 經驗的 結果라는 말은 적어도 두 方式으로 해석될 수 있다. 科學的 理論이 經驗的

結果를 낳는다는 말은 그 理論에 담긴 法則이 觀察될 수 있는 現象을 說明하고, 그런 現象의 出現이 그 法則의 確率을, 따라서 그 理論의 全體的 確率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意識存在論은 이런 뜻에서는 經驗의 結果를 낳지 못한다. 物心二元論이나 物心同一實體論은 現象을 直接的으로 說明하고 現象에 依해서 直接的으로 立證되지 않는다. 意識存在論은 現象을 說明하는 理論의 構造를 規定한다는 뜻에서 經驗의 結果를 낳는다. 意識存在論은 理論論의 理論(meta-theoretical)이다. 意識存在論이 理論心理學의 原始型이라고 보는 사람은 意識存在論은 理論科學처럼 經驗적으로 反證될 수 있다고 主張할 것이다. 經驗的 探究를 통해서 意識狀態와 人體狀態 사이에 一對一의 符合를 發見할 수 없으면, 物心並行論이 經驗적으로 反證된다고 看做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主張할 것이다. 上述한 경우에 物心並行論이 拋棄될 법하지만, 그 拋棄의 理由는 經驗的 證據 缺如에 依한 反證이라기보다는 事實과의 不합으로 因한 用途의 喪失이다. 意識存在論의 命題는 칸트의 意味보다는 弱한 意味에서 定驗的 規範의 性格을 가졌다고 본다. 意識存在論은 또 方法論的 結果를 낳는다. 物心並行論者는 주어진 心理現象을 說明함에 있어 그것과 法則적으로 共存하는 人體狀態를 發見하려 할 것이며, 物心相互作用論者는 주어진 心理現象을 說明함에 있어 그것에 時間적으로 先行하는 物理的原因을 發見하려 할 것이다.

物心同一實體論은 意識狀態와 物質狀態를 서로 論理的으로 또 存在論적으로 分離된 屬性으로 해석한다. 物心同一實體論은 實體二元論은 아니나 屬性二元論이다. 物質에서의 意識의 存在論的 獨立性を 否定하는 理論이 物質主義的 意識論이다. 먼저 物質主義的 意識論의 硬型 즉 論理的 還元論을 살펴 보겠다.

筆者는 지금까지의 論述에서 分析哲學의 分析對象이 무엇인지를 明白히 하지 않았다. 哲學的 分析의 對象이 概念과 命題인가 言語인가 하는 물음은 實로 重要的 물음이다. 分析哲學의 初期에는 概念分析 및 命題分析和 言語分析이 確實히 區別되지 않았었지만, 概念이니 命題니 意味니 하는 抽象的 存在가 批判的 考察의 對象이 됨에 따라 分析哲學은 意味나 命題보다는 具體的인 言語를 哲學的 分析의 對象으로 삼게 되었다. 言語로의 轉回(the

linguistic turn)가 現代分析哲學의 劃期的인 事件이었다. 還元論의 여러 形態를 다루는데 있어 特히 意識狀態나 心理的 命題보다 心理的 文章을 論하는 것이 論述의 明瞭性에 寄할 것이다.

論理的 還元論에도 여러 形態가 있다. 論理的 行動主義(logical behaviorism)는 心理的 文章이 行動 또는 行動素質(action disposition)을 記述하는 文章으로 分析될 수 있다는 理論이다. 論理的 行動主義와 對照되는 形態의 還元論은 心理的 文章은 理論科學的 文章으로 分析될 수 있다는 科學的 還元論(scientific reductionism)이다. 論理的 還元論의 두 形態사이의 差異가 些少하지는 않다. 論理的 行動主義者는 心理的 文章이 理論科學的 文章으로 分析될 수 없다고 主張하기 때문이다. 論理的 行動主義者는 理論科學的 文章이 心理的 文章이 記述하는 現象의 說明에 介入할 수는 있지만 前者의 文章이 後者의 文章을 分析할 수는 없다고 主張한다. 그 理由는 分析하는 文章(analyzans)과 分析되는 文章(analyzandum)이 같은 方式으로 立證되어야 하는데 心理的 文章과 理論科學的 文章, 例컨대 神經生理學的(neurophysiological) 文章은 確實히 다른 方式으로 立證된다는 것이다.

心理的 文章이 理論科學的 文章으로 分析될 수 있다는 主張은 心理的 法則 모두가 心理的 文章을 分析하는 文章이 屬하는 科學에서 樹立된 法則들로부터 演繹될 수 있다는 것을 含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心理的 言語의 還元과 心理的 法則의 還元을 區別해야 한다. 카아납(Rudolf Carnap)을 포함한 統一科學運動(the unified science movement)을 벌린 사람들은 心理的 言語의 還元을 主唱했지 心理的 法則의 還元은 主唱하지 않았다. 心理現象의 客觀化, 心理現象說明의 論理的 特異性的 否定 및 이에 따르는 說明의 構造的 統一, 心理學의 理論科學化가 科學的 還元論의 志向이다. 論理的 行動主義도 心理現象의 客觀化를 志向하지만 心理學의 理論科學化에는 抵抗한다.

還元論의 두 形態 모두가 상당한 語義學的(semantic) 및 認識論的 抵抗을 받아 왔다. 心理的 文章은 모두가 內延的 文章(intensional sentence)인 반면 넓은 뜻에서의 物理的 文章은 外延的 文章(extensional sentence)이며, 內延的 文章은 外延的 文章으로 分析될 수 없으므로, 心理的 文章의 還元的 分

析이 不可能하다는 反論이 자자하다. 그러나 그 反論의 論點 하나 하나가 문제거리다. 모든 心理的 文章이 內延의인가, 모든 物理的 文章이 外延의인가, 內延의 文章은 과연 外延의 文章으로 分析될 수 없는가의 물음에는 아직 確答이 나오지 않았다. 還元에 對한 過分한 熱意로 因하여 還元論者가 上述한 語義學的 反論을 慎重히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反論이 還元論에 對한 致命的인 反論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論理的 還元論 一般에 對한 또하나의 反論은, 그 理論이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의 認識論的 特殊性을 度外視한다는 것이다. 그런 文章은 觀察을 통해 立證되지 않고, 立證이 필요 없는 不可錯誤的 性格을 가졌다. 分析되는 文章과 分析하는 文章은 意味的 同價를 가져야 하는데, 두 文章이 意味的 同價를 가지려면 그들의 立證方式이 같아야 하므로,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의 還元的 分析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그 反論의 要點이다. 還元論者는 그 反論에 대하여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과 그 文章의 第三人稱形의 意味가 다르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文章이 記述的 文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筆者가 알기엔 上述한 反論에 應하는 단족스런 對答이 論理的 還元論者側에서 나오지 못했다.

存在論的 還元論을 考察하기 전에 그 理論과 論理的 還元論사이의 中間的 位置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基準的 行動主義(criteriological behaviorism)를 살펴 보겠다. 基準的 行動主義는 觀察할 수 있는 行動이 行動者에게 對한 心理文章 適用의 基準이 된다는 理論인데, 後期 비트겐슈타인이 내놓은 그 理論은 그의 追從者들에게 精鍊되었다. 基準的 行動主義의 解說은 그 理論의 破壞的 論議인 이른바 私有言語論議(the private language argument)의 考察로 시작하는 것이 合當할 것 같다. 아래서 私有言語論議의 論理的 構造를 可及의으로 保存하면서 그 論議를 풀겠다.

私有言語는 定義上 그 言語의 使用者만이 理解할 수 있는 言語다. 私有言語의 使用者 以外的 다른 사람이 그 言語를 理解하는 것은 理論적으로 不可能하다. “E”라는 記號가 한 言語를 構成한다고 假定하자. “E”의 使用者가 “E”를 그가 가진 어떤 種類의 意識狀態를 意味하는 記號로 規定한다면 “E”는 私有言語다. 意識狀態는 假定上 그것의 所有者만이 反省의으로 直觀할 수

있으므로 “E”가 그 記號의 使用者가 가진 어떤 種類의 意識狀態를 意味하는 것으로 規定되면 그만이 “E”의 意味를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記號가 可能한 言語이러면 그 記號의 使用을 規制하는 使用規則이 있어야 한다. 記號의 使用規則은 다음의 性格을 가져야 한다. 주어진 記號를 주어진 規則에 따라 使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規則을 違反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記號를 使用함에 있어 그 記號의 使用者가 使用規則을 잘못 適用하는 것이 可能해야 한다. 그런데 記號의 使用을 規制하는 使用規則이 그 規則에 따라 그 記號를 使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못 適用될 수 있다는 말이 意味를 가지려면, 그가 그 使用規則을 違反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E”를 그가 가진 어떤 種類의 意識狀態를 意味하는 記號로 規定하면서 “이런 種類의 意識狀態만이 E라 불리울 수 있다”는 使用規則을 採擇한다고 假定하고 그 使用規則을 R 이라고 부르자. “E”가 처음으로 適用된 그의 意識狀態와 同一한 種類의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意識狀態가 생길 때, 後者를 E 라 부르는 것이 R 와 符合되는가를 斷定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前에 E 라 불리운 意識狀態와 지금 있는 意識狀態가 同一한 種類에 屬한다는 印象을 갖는 것이다. 한편 그가 그런 印象을 가지면 그는 그가 R 에 따라 “E”를 使用한다고 判斷할 수 밖에 없다. 즉 그가 R 을 올바르게 適用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判斷할 수 밖에 없다. R 의 適用者만이 그가 R 을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適用하는가를 判斷할 수 있으므로 그의 判斷은 決定的 性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R 을 올바르게 適用한다고 생각하면 그가 R 을 올바르게 適用한다. 따라서, 그가 R 을 올바르게 適用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가 R 을 잘못 適用할 수 있다고는 一貫性 있게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가 R 을 올바르게 適用한다고 생각했음에도 不拘하고 實은 R 을 違反했다는 것을 發見할 수 없는 것은 勿論이다. 發見할 事實이 論理的으로 不可能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R 은 記號使用規則의 資格을 갖지 못하고 “E”는 可能한 言語가 아니다. 그러므로 私有言語는 可能한 言語가 아니다.

私有言語論議는 無數한 贊反論의 對象이 되었으며 그 論難은 50年代 後半期와 60年代 前半期에 걸쳐 英美 哲學界를 動搖시켰다. 私有言語論議를

둘러싼 論難을 充分히 다루기 위해서는 別途의 論文이 필요하겠고, 여기서는 本論文의 文脈과 密接히 關聯되는 私有言語論議의 意義만을 略述할 수 밖에 없다. 私有言語論議는 現象의 言語(phenomenal language) 一般의 可能性을 否定하는 包括的인 趣旨을 가졌다. 現象의 言語란 現象主義가 基本言語라고 보는 言語뿐 아니라 反省的 直觀에 나타나는 意識狀態와 直接 結付됨으로써 意味를 갖게 된다는 心理的 言語 一般을 指稱한다. 록(John Locke), 바클리(George Berkeley)와 흄(David Hume)이 代表하는 英國 經驗論, 物心二元論, 物心同一實體論과 無主體論 모두가 基本言語로 看做하는 言語가 現象의 言語라고 私有言語論議者는 解釋한다. 私有言語가 言語의 資格을 못 가진다는 論議의 核心은 言語는 公有的 記號體系로서 客觀的인 使用基準(criterion of use)을 內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理的 言語도 客觀적으로 觀察될 수 있는 行動(behavior)을 그 使用의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心理的 言語가 私有言語로 해석되면, 그 言語의 通用 및 敎習이 說明될 수 없다는 것이다. 私有言語論議는 또 在來의 哲學에서 널리 首肯되어 온 關係意味論(the referential theory of meaning)의 否定을 含蓄한다. 그 意味論에 依하면 名詞의 意味는 그것이 指稱하는 어떤 對象이다. 言語는 事實上 存在하지 않는 對象을 指稱하는 名詞을 많이 包含하므로, 大多數의 關係意味論者는 意味있는 말은 意識에 內在하는 心像 또는 概念이나 또는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는 普遍(universals)을 指稱한다는 意味論에 이끌렸다. 私有言語論議가 含蓄하는 言語觀에 依하면, 言語의 意味性(meaningfulness)은 그 言語가 指稱하는 對象의 有無에 달려 있지 않고 그 言語의 使用을 規制하는 客觀的 基準의 有無에 달려 있다. 基準的 言語觀은 言語의 “意味는 使用”(“Meaning is use”)이라는 標語를 내진다.

基準的 行動主義는 心理的 文章의 使用基準이 그 文章이 適用되는 사람의 觀察할 수 있는 行動이라고 主張하는데, 行動的 基準을 記述하는 文章의 論理的 性格이 문제된다. ϕ 라는 心理的 文章의 使用基準이 그 文章이 適用되는 사람의 어떤 行動이라면, 그 行動을 記述하는 文章 ϕ 가 ψ 와 어떤 論理的 關係를 가졌는가의 問음이 일어난다. ϕ 가 ψ 의 論理的으로 充分하고 必要한 條件이면 基準的 行動主義는 論理的 還元論의 一型이 될 것이나 基準的 行

動主義者는 ϕ 가 ψ 를 論理的으로 含蓄하는가의 質問에 대한 確答을 주기 꺼려한다. 위의 質問에 대한 그의 典型的인 反應은 ϕ 만이 ψ 의 論理的 充分條件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어떤 行動은 어떤 適合한 狀況에서 일어나야만 그 사람에게 대한 心理的 文章 適用의 基準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適合한 狀況을 記述하는 文章 C와 ϕ 의 論理的 結合(logical conjunction)이 ψ 를 論理的으로 含蓄하는가의 물음이 일어난다. 이 물음에 대한 基準的 行動主義者의 典型的인 反應은 ϕ 가 記述하는 行動과 더불어 理論的으로 可能한 懷疑 없이 ψ 를 使用케 하는 狀況을 斷定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心理的 文章의 使用은 理論的 確實性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心理的 文章은 意味的 完全性을 갖지 못했다. 心理的 文章을 明確히 定義하려는 改革的 態度는 自然言語의 伸縮性을 인식하지 못하는에서 나오는 그릇된 態度라는 것이다. 한편 適合한 狀況에서 일어나는 基準的 行動은 비록 그것을 基準으로 삼는 心理的 文章 使用의 論理的 充分條件은 되지 못할망정 實踐的 充分條件이 된다고 基準的 行動主義者는 主張한다. 苦痛을 表示하는 사람을 볼 때 그 表示의 眞實性을 理論的인 문제로 삼지 않고 그 狀況에 適合하게 反應하는 것이 人間生活의 形態며 基準的 行動에 依據하는 心理的 文章의 使用도 그 行動에 對한 自然的 反應의 한 側面이다.

基準的 行動主義者가 解答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물음은 行動的 基準에 依據하지 않는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이다. 文章의 記述의 使用이 基準에 依據하는 使用이라면,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의 使用은 記述의 使用이 되지 못 할 것이다. 빌젠슈타인과 그의 代表的 弟子 맬컴(Norman Malcolm)教授는 그 結論을 首肯하고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의 使用을 言語行動(linguistic behavior)으로만 본다. 한편 스트로우슨(P. F. Strawson)은 第二人稱 및 第三人稱의 心理的 文章에 관한 빌젠슈타인의 見解를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行動的 基準에 依據하지 않는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의 使用도 記述의 使用이 될 수 있으며, 그런 文章의 使用이 行動的 基準에 依據하지 않고 그 文章의 第三人稱의 使用은 行動的 基準에 依據한다는 것이 心理的 文章의 原始的 特徵으로 認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基準的 行動主義에서 記述的으로 使用되는 心理的 文章이 무엇을 記述하는가의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대한 基準的 行動主義者의 反應은 忌避的이다. 意識狀態가 있건 없건 그것은 心理的 言語의 使用과 意味와는 아무 關聯이 없다는 것이 그의 迂回的인 答辯이다. 그러나 結局에 가서는 基準的 行動主義가 物質主義的 存在論의 偏見을 담고 있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物質狀態가 아닌 意識狀態는 없고 適合한 狀況에서 일어나는 基準的 行動이 곧 心理的 記述의 對象이라는 見解가 基準的 行動主義가 暗示하는 바라고 본다. 스트로우슨은 빌겐슈타인의 影響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例外다. 그는 第一人稱 現在形 單數의 心理的 文章이 意識狀態를 記述한다고 主張함으로써 行動的 基準의 定義的 機能을 否定치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섰다.

基準的 行動主義는 他意識者問題(the other minds problem)을 解消해 버린다. 그의 論文 "Knowledge of Other Minds" (*Journal of Philosophy*, LV, 1958)에서 맬컴教授는 他意識者 存在의 類推는 不必要하거나 不可能하다고 論議한다. 자기 以外에도 다른 意識者가 즉 心理的 文章의 適用對象이 있다는 文章이 意味롭게 쓰이려면 第三人稱 心理的 文章의 行動的 使用基準이 필요하며, 그런 基準이 있으면 第三人稱 心理的 文章 및 다른 意識者가 있다는 文章의 使用은 아무 推理도 要求하지 않는다. 第三人稱 心理的 文章의 行動的 使用基準이 있으면 문제의 類推는 不必要하며 他意識者 存在의 問題는 似而非 問題다. 한편 第三人稱 心理的 文章의 行動的 使用基準이 없으면 그 文章 및 다른 意識者가 있다는 文章이 意味롭게 使用될 수조차 없으므로 그 경우엔 문제의 類推가 不可能하다.

앞서 物質主義的 意識論의 硬型과 軟型을 區別하고 後者를 存在論的 還元論이라고 일컬었다. 存在論的 還元論은 心理的 言語와 物理的 言語가 論理的 構造와 使用方式에서 다르나, 意識狀態라고 불리우는 것은 事實上 物質狀態 또는 物質過程이라고 主張한다. 플레이스(U.T. Place), 스마아트(J.J.C. Smart), 파이글(Herbert Feigl)이 存在論的 還元論의 代表的 代辯者들이다. 플레이스는 그의 論文 "Is Consciousness a Brain Proc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965)에서, 心理的 文章의 어떤 것은 行動素質을 記述하-

는 文章으로 分析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直感的 經驗(sensations)을 記述하는 文章의 還元的 分析은 不可能하지만 그런 文章이 記述하는 것은 事實上 頭腦過程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同一性 文章(identity sentence)의 性格을 밝힐 필요가 있다. 同一性 文章에는 적어도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論理的 同一性 文章이 있다. “A는 A다”라는 同一性 文章은 “A”의 意味나 適用對象과 關聯 없이 論理的 必然性을 가진 文章이며 아무 事實의 意味를 갖지 못 한다. 둘째로, 定義的 同一性 文章이 있다. 例컨대, “사람은 理性的 動物”이라는 文章은 “사람”의 意味와 適用範圍가 “理性的 動物”의 意味와 適用範圍와 各各 同一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定義的 同一性 文章도 論理的 必然性을 가지고 事實的 意味를 갖지 못한 점에서 論理的 同一性 文章과 類似하지만, 定義的 同一性 文章에는 語義學的 要素가 介入하는 점에서 論理的 同一性 文章과 다르다. 셋째로, 事實的 同一性 文章이 있다. 例컨대, “새벽별(the Morning Star)은 저녁별(the Evening Star)이다”라는 文章은 論理的 必然性을 못 가진 반면에 事實的 意味를 갖는다. 푸레게(Gottlob Frege)는 名詞나 記述의 意味(Sinn)와 適用對象(Bedeutung)을 區別함으로써 事實的 同一性 文章을 해석했다. “새벽별은 저녁별이다”라는 同一性 文章은 意味가 다른 “새벽별”과 “저녁별”의 適用對象이 같다는 것을 意味한다. “새벽별”과 “저녁별”의 定義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意味가 다르며, 그들의 適用對象이 같다는 것은 語義學的 分析으로 立證될 수 없고 天文學的 理論으로만 立證될 수 있다. 事實的 同一性 文章에도 勿論 여러 가지가 있다. 存在論的 還元論과 直接 關聯되는 種類의 事實的 同一性 文章은 現象의 記述의 適用對象과 理論科學的 記述의 適用對象의 同一性을 意味하는 文章이다. “M類의 直感的 經驗(sensation)”이라는 記述의 意味가 “P類의 頭腦過程(brain process)”이라는 記述의 意味와 다르지만 그들 記述이 同一한 適用對象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存在論的 還元論의 主張이다. 存在論的 還元論의 優先的 課題는 그 理論이 論理的 矛盾을 內包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나, 그 理論의 論理的 一貫性이 인정되고 나서도 그 理論의 科學的 또는 科學哲學的 立證이 要請된다.

存在論的 還元論은 사람이 特定한 種類의 直感的 經驗을 가질 때마다 特

定한 神經生理學的 過程이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法則이 있음을 含蓄한다. 그런 法則이 科學的 觀察로 立證되었다고 假定해도 그 法則은 存在論的 還元論을 充分히 立證하지는 못한다. 같은 法則이 物心同一實體論의 證據로도 看做될 수 있기 때문이다. 存在論的 還元論의 立證은 直感的 經驗과 頭腦過程사이의 一對一符合의 關係의 立證以外에 單純性原理의 適用을 要求한다. 폴레이스는 위에서 指摘된 論文에서 이 점을 밝히지 못했으나, 스다아트는 그의 論文 "Sensations and Brain Processes" (V.C. Chappell, ed., *The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2)에서, 파이클은 그의 論文 "The 'Mental' and the 'Physical'"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I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8)에서 이 점을 強調한다. 즉, 存在論的 還元論의 科學哲學的 根據는, 直感的 經驗을 物質狀態나 物質過程과 範疇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는 存在論보다는 그것들을 同一視하는 物質主義的 存在論이 좀더 單純하다는 것이다. 論理的 還元論과 存在論的 還元論은 類似한 趣旨을 가졌다. 心理現象의 客觀化, 心理現象說明의 科學化, 心理學의 理論化가 두 還元論이 함께 가진 趣旨이다. 그러나 存在論的 還元論이 既成 心理的 言語의 語義學的 特殊性을 輕視하는 論理的 還元論에 비해 좀더 慎重한 理論이다.

存在論的 還元論에도 言語改造의 趣旨이 들어 있음을 밝히고 그 理論을 論理的 還元論에 接近시킨다는 점에서 리차드 로오티(Richard Rorty)의 論文 "Mind-Body Identity, Privacy, and Categories" (*Review of Metaphysics*, Vol. XIX, no.1, 1965)가 重要視된다. 로오티의 論點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生理心理學의 發達에 따라 心理現象과 神經生理學的 過程사이의 一對一符合의 關係가 세워지고 單純性原理에 立脚한 科學哲學的 關心에서 存在論的 還元論이 採擇되면, 第一人稱 心理的 文章의 報告의 使用과 觀察할 수 있는 行動을 說明하는 文脈에서의 心理的 文章의 說明의 使用이 서서히 淘汰될 것이다. 즉 存在論的 還元論의 採擇은 言語改造의 理由뿐 아니라 原因이 될 것이다. 論理的 還元論이 단숨에 成就하려는 言語改造는 科學 및 科學哲學의 進歩의 結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關聯에서 칸트哲學에 담긴 科學哲學的 主張 하나를 指摘하고 싶다. 칸

트哲學을 科學哲學으로 解釋하면, 그의 哲學은 物理的 言語(physicalistic language)의 優先性을 主張한다. 先驗的 演繹(transzendente Deduktion)의 要旨가 客觀的 對象에 適用되는 物理的 言語 없이는 經驗的 記述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無理는 아니다. 칸트 以後 科學哲學의 還元主義的 傾向이 칸트哲學에 담긴 客觀性에 對한 執念의 發展이라고 볼 수 있다.

III. 結 言

現代 心理哲學의 動向을 살펴보면, 知識의 客觀化, 知識의 體系的 統一, 存在論의 單純性 志向이 그 主動力을 이루고 있다. 言語에 關한 哲學的 研究의 高踏化가 어느 정도 現代 心理哲學의 還元主義的 趨勢를 牽制하지만 還元主義는 言語哲學的 器具를 利用할 수 있을 만큼 熟練되었다. 哲學史는 未解決의 問題가 차차 解決되어가는 一線的인 進步過程이 아니라 몇몇 類型의 思考方式이 盛衰하고 中興하는 舞臺다. 哲學이 새로운 觀點이나 새로운 方法을 내놓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哲學에서 새롭다는 것은 곧 傳統的 思考 類型에 吸收된다. 還元主義的 動向도 얼마 안가서 衰하고 二元論的 或은 觀念論的 思考方式이 원수 같듯이 다시 盛하는 時代가 올지도 모른다.

意識存在論은 人間의 自己知識의 理論化다. 사람은 自己의 本性을 스스로 規定해야 한다는 實存主義者의 말에 一理가 있다. 사람은 結局 理論을 통해서만 自己가 어떤 存在임을 規定할 수 있으나, 꽤 오랜 哲學史를 도리켜 볼 수 있는 歷史的 視野가 許諾되는 오늘 特定한 人間論的 絕對的인 妥當性을 固執하기는 曷스럽다. 사람은 그 자신에게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며,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는 恒久的인 努力이 곧 哲學이다.

(美 오하이오州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大 教授)